

# 엔하이픈 “사랑받을 자격 증명하겠다”

미니 3집 발표…데뷔 첫 랩

당당·주체적 소년상 담아내

그룹 엔하이픈은 지난 4일 세 번째 미니앨범 ‘매니페스토 : 데이 1’ (MANIFESTO : DAY 1)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서 “우리가 밀리언셀러라는 타이틀도 얻고 기쁨도 컸지만, 이런 성공이 우리의 능력과 노력만으로 얻어진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스스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앨범이 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매니페스토 : 데이 1’은 어른들이 정의한 ‘성공’에 의구심을 품게 된 멤버들이 ‘타인이 시키는 대로 살지 않고 스스로 답을 찾겠다’고 결심하는 스토리를 담은 음반이다.

앨범에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비롯해 원더키드(Wonderkid) 등 하이브 레이블즈 사단이 프로듀서로 참여해 완성도를 높였다. 멤버 제이크도 작사에 동참했다..

성훈은 “음악방송 MC를 하며 많은 아티스트의 무대를 보면서 우리도 빨리 컴백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한층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거듭었다. 그러면서 “우리 세대의 생각을 세상에 당당히 선언하는 느낌으로 가고 싶다”고 욕심을 드러냈다.

음반에는 타이틀곡 ‘퓨처 퍼펙트’ (Future Perfect)를 비롯해 3개 국어 내레이션이 인상적인 ‘워크 더 라인’ (WALK THE LINE), 어른들에게 일침을 날리는 올드스쿨 힙합 사운드 ‘패러독스 인베이션’ (ParadoXXX Invasion



그룹 엔하이픈

/빌리프랩 제공

), 초여름에 잘 어울리는 소프트 팝 록 ‘TFW’, 멤버 제이크가 작사에 참여한 얼터너티브 록 ‘샤우트 아웃’ (SHOUT OUT) 등이 수록됐다. 타이틀곡 ‘퓨처 퍼펙트’는 국내 K팝 음악계에서는 흔치 않은 ‘시카고 드림’ 장르의 노래다. 일곱 소년이 또래 세대에게 ‘먼저 앞으로 나아갈 테니 함께 가자’고 선언하는 곡이다. 이들의 타이틀곡 가운데 처음으로 제목에 ‘하이픈’(-)이 빠졌다.

희승은 “‘시카고 드림’이라는 생소한 장르를 처음 접하기도 했고, 데뷔 이후 처음으로 랩에 도전하면서 우리 모두 성장했다”며 “여러 부분에서 시너지를 낼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실력도 더욱 단단해졌다”고 준비 과정을 되돌아봤다.

이번 음반은 지난해 정규 1집과 리패키지 음반 이후 반년 만에 선보이는 것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데뷔한 이들은 이번 활동으로 음악 프로그램 현장에서는 처음으로 팬들을 만난다.

선우는 “새 앨범을 준비하면서 틈틈이 자체 콘텐츠도 촬영하고 일본 활동도 하면서 공백기란 시간이 무색할 만큼 알차게 보냈다”며 “EBS 라디오를 4개월간 진행했는데, 청취자와 소통하면서 이번 앨범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연극 ‘두 교황’ 원로배우 신구 캐스팅

넷플릭스서 영화화된 화제작

정동환·남명렬 등 호화 출연진

프란치스코 교황과 베네딕토 16세 교황의 우정을 다룬 연극 ‘두 교황’이 영국 초연 이래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라이선스 공연을 선보인다. 주연으로는 원로 배우 신구와 정동환이 캐스팅됐다.

공연제작사 에이콤은 5일 오는 8~10월 서울 한전아트센터 무대에 올리는 연극 ‘두 교황’의 캐스팅을 공개했다.

신구는 배우 서인석, 서상원과 함께 교황 베

네딕토 16세 역에 캐스팅됐고, 정동환과 남명렬이 프란치스코 역으로 발탁됐다.

프란치스코 역에 더블캐스팅 된 정동환은 신시컴퍼니가 오는 13일부터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 올리는 대작 ‘햄릿’ 출연도 앞두고 있다. 남명렬은 올해 국내 최고 권위의 ‘이해랑 연극상’을 수상했다.

연극 ‘두 교황’은 자신 퇴위로 가톨릭계를 떠돌적하게 했던 교황 베네딕토 16세와 그 뒤를 이은 교황 프란치스코의 실화를 바탕으로 영국의 세계적인 극작가 앤서니 매카튼이 쓴 작품이다.

이 작품은 2017년 희곡으로 쓰인 뒤 2019년

6월 영국 로열앤드던게이트에서 연극으로 초연됐다. 이어 영화로 제작된 이 작품은 2019년 12월 넷플릭스에서 공개돼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다.

오는 8월 30일부터 10월 23일까지 공연되는 연극 ‘두 교황’은 원작 연극의 세계 최초 라이선스 공연이다.

제작사는 “‘두 교황’은 정반대의 성격과 성향을 가진 두 교황의 이야기를 통해 ‘틀림이 아닌 다름’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작품으로, 위트 있는 대사와 파스한 음악들이 유쾌하게 풀어내며 울림 있는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 EBS 신인 뮤지션 발굴 ‘헬로루키’ 3년만 재개

1차 음원모집 오는 24일까지

EBS 1TV ‘스페이스 공감’이 신인 뮤지션 발굴 프로젝트인 ‘헬로루키’를 3년 만에 재개한다.

EBS는 오직 음악만으로 평가받는 무대를 선보이는 ‘2022 헬로루키’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헬로루키’는 2007년부터 국카스텐, 장기하와 얼굴들, 데이브레이크, SUR.L, 잠비나이 등 국내 실력과 뮤지션 163팀을 배출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2019년부터 잠시 중단됐다.

‘2022 헬로루키’에는 국내에서 활동 중인 신인 뮤지션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앨범을 발매한 적이 없거나 첫 앨범을 발매한 지 2년이 넘지 않은 솔로·그룹·밴드여야 한다. 그룹·밴드 일원이 ‘올해의 헬로루키’ 수상 경력이 있으면 지원할 수 없다.

1차 음원 모집은 오는 24일까지, 2차 음원 모



2022 헬로루키

/EBS 제공

집은 8월 8일부터 29일까지다.

접수는 스페이스 공감 홈페이지(www.ebsspace.com)에서 하면 되며, 신청 시 아티스트 정보, 음모 곡, 음모자 정보를 필수로 기재해야 한다.

현장 심사와 본선, 결선을 거쳐 최종 대상 1팀, 우수상 1팀, 심사위원 특별상 1팀이 선발되며, 결선 무대는 EBS 1TV에서 특집 방송된다.

/연합뉴스

## 아이콘, 일본 투어 전석 매진으로 시작

9~10일 도쿄 공연

그룹 아이콘이 일본투어 첫 공연을 전석 매진으로 마무리했다고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가 지난 4일 밝혔다.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아이콘은 지난 2일과 3일 일본 효고현 고베 월드기념홀에서 ‘아이콘 재팬 투어 2022’ (IKON JAPAN TOUR 2022)의 시작을 알렸다. 이틀간 3차례 진행된 공연은 전석 매진됐다.

아이콘은 ‘죽겠다’를 시작으로 약 150분 동안 새 앨범 수록곡 무대, ‘취향저격’, 사랑을 했다’ 등 대표곡들을 불렀다. 현지 팬들을 위해 ‘뛰어들게 와’ ‘너라는 이유’의 일본어 버전을 처음으로 공개하기도 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관중들의 폐창과 환호는 불가능했다.

아이콘은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감동이다”라며 “앞으로도 아이콘은 발전하고 좋은



그룹 아이콘

/YG엔터테인먼트 제공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아이콘은 7일 총 12곡이 담긴 일본어 앨범 ‘플래시백 [+아이 디사이드]’ (FLASHBACK [+i DECIDE]) 음원을 공개한다. 9일과 10일엔 도쿄 국립 요요기 경기장 제1체육관에서 일본 투어를 이어갈 예정이다.

/연합뉴스

## 키이스트, ‘청춘MT’ 제작…박서준·박보검 출연

티빙서 오는 9일 공개

연예 매니지먼트 업체인 키이스트가 자회사 스튜디오폴로우와 예능 ‘청춘MT’를 공동 제작한다고 4일 밝혔다.

키이스트가 처음 제작하는 예능 ‘청춘MT’는 김성운 PD의 드라마 ‘구르미 그린 달빛’, ‘이태원 클라쓰’, ‘안나리수마나라’ 등에 출연

한 배우들이 모여 연합 MT를 즐기는 모습을 담는다.

박보검, 김유정, 진영, 박서준, 안보현, 권나라, 지창욱, 최성은 등이 출연한다.

김 PD와 ‘여짜다 사장’, ‘1박2일 시즌3’의 지현숙 작가와 ‘아는형님’의 정종찬 PD가 제작에 참여한다. ‘청춘MT’는 티빙에서 오는 9일 공개된다.

/연합뉴스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KBS1                                                                                                                                                  | KBS2                                                                                                                                                                                       | MBC                                                                                                                                                     | KBC-SBS                                                                                                                                                           | EBS                                                                                                                                                                                                                                                                                                                                                                                                                                                                                          |
|-------------------------------------------------------------------------------------------------------------------------------------------------------|--------------------------------------------------------------------------------------------------------------------------------------------------------------------------------------------|---------------------------------------------------------------------------------------------------------------------------------------------------------|-------------------------------------------------------------------------------------------------------------------------------------------------------------------|----------------------------------------------------------------------------------------------------------------------------------------------------------------------------------------------------------------------------------------------------------------------------------------------------------------------------------------------------------------------------------------------------------------------------------------------------------------------------------------------|
| 6:00 통합뉴스룸<br>7:50 인간극장<br>8:25 아침마당<br>9:30 통합뉴스룸<br>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br>11:00 이슈 픽 쌤과 함께                                                            | 6:00 생활의 발견 스페셜<br>6:10 걸어서 세계 속으로<br>7:00 해 불만한 아침 1부<br>8:10 해 불만한 아침 2부<br>9:00 KBS 아침 뉴스 타임<br>9:20 오라차차 내 인생<br>10:00 인간극장 스페셜<br>10:40 지구촌 뉴스<br>11:00 징크스의 연인                       | 6:00 뉴스투데이 1부<br>6:25 뉴스투데이 2부<br>7:50 생방송 오늘 아침<br>8:50 비밀의 집<br>9:30 930 MBC 뉴스<br>9:45 기분 좋은 날<br>10:45 푸라기 식사교실<br>11:15 글로벌 동물뉴스<br>11:45 치치뽀뽀 시즌4 | 6:00 모닝와이드 1부<br>6:25 모닝와이드 2부<br>7:40 모닝와이드 3부<br>8:40 맨인블랙박스 스페셜<br>8:50 좋은아침<br>9:55 SBS 10뉴스<br>10:30 설맞이는 오늘<br>11:00 애니갤러리<br>11:30 슈퍼디노<br>11:45 헬로키티 2부 바 | 6:10 세계테마기행<br>7:00 두디다공<br>7:15 티시테시<br>8:00 당동명 유치원<br>8:20 한글왕사 아이아<br>9:05 빅블루<br>9:20 멤버와 함께하는 생활안전 이야기<br>10:10 한국의 둘레길<br>10:30 한국기행<br>10:50 최고의 요리비결<br>11:20 세계테마기행<br>12:00 EBS 뉴스12<br>12:10 극한직업<br>1:50 EBS 다큐프라임<br>2:45 연가를 찾자마<br>3:35 안전채널e<br>4:05 영어스토리 타임<br>4:15 페파 피그<br>5:00 EBS 뉴스<br>5:45 시흥<br>6:00 생방송 뚝지 해결단<br>6:45 티타임 쿠키<br>7:30 한국의 둘레길<br>7:50 세상에 나쁜개는 없다<br>8:40 세계테마기행<br>9:30 한국기행<br>9:50 EBS 다큐프라임<br>10:45 다큐영화 길 위의 인생<br>11:35 위대한 수업<br>그레이트 마인즈 |
| 12:00 통합뉴스룸<br>1:00 아마도 마지막 존재<br>1:50 생활의 발견 스페셜<br>2:00 통합뉴스룸<br>2:10 열린채널<br>2:50 어린이 동물디비<br>3:20 청춘아구단<br>4:00 사사건건<br>5:00 통합뉴스룸<br>5:30 동물의 왕국 | 12:15 징크스의 연인<br>1:30 세상을 걷다 스페셜<br>1: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br>3:00 KBS 뉴스타임<br>3:10 갤럭시 키즈<br>3:30 TV 유치원<br>4:00 국민 영수증<br>5:00 도깨비 언덕에 왜 왔니<br>5:15 뽀족뽀족 포크가족<br>5:30 골편 영화가 좋다<br>5:50 통합뉴스룸ET | 12:00 12MBC 뉴스<br>12:20 MBC 스포츠 2022 춘천코리아오픈 태권도 대회<br>1:50 2시 뉴스 외전<br>3:20 뽀뽀뽀 좋아좋아<br>3:55 기분 좋은 날<br>4:55 5MBC 뉴스<br>5:10 PD 수첩                     | 12:00 SBS 12 뉴스<br>12:50 골 때리는 그녀들<br>2:00 뉴스브링<br>4:00 와이드 정보소 알고보면<br>5:00 SBS 오뉴스<br>5:50 DNA 싱어                                                               | 6:50 세계테마기행<br>7:00 두디다공<br>7:15 티시테시<br>8:00 당동명 유치원<br>8:20 한글왕사 아이아<br>9:05 빅블루<br>9:20 멤버와 함께하는 생활안전 이야기<br>10:10 한국의 둘레길<br>10:30 한국기행<br>10:50 최고의 요리비결<br>11:20 세계테마기행<br>12:00 EBS 뉴스12<br>12:10 극한직업<br>1:50 EBS 다큐프라임<br>2:45 연가를 찾자마<br>3:35 안전채널e<br>4:05 영어스토리 타임<br>4:15 페파 피그<br>5:00 EBS 뉴스<br>5:45 시흥<br>6:00 생방송 뚝지 해결단<br>6:45 티타임 쿠키<br>7:30 한국의 둘레길<br>7:50 세상에 나쁜개는 없다<br>8:40 세계테마기행<br>9:30 한국기행<br>9:50 EBS 다큐프라임<br>10:45 다큐영화 길 위의 인생<br>11:35 위대한 수업<br>그레이트 마인즈 |
| 6:00 6시 내고향<br>7:00 통합뉴스룸<br>7:40 일꾼의 탄생<br>8:30 오라차차 내 인생<br>9:00 통합뉴스룸<br>10:00 생로병사의 비밀<br>10:50 더 라이브<br>11:30 통합뉴스룸                              | 6:30 2TV 생생정보<br>7:50 황금가면<br>8:30 옥탑방의 문제아들<br>9:50 징크스의 연인<br>11:00 요즘 것들이 수상해                                                                                                           | 6:05 생방송 오늘 저녁<br>7:05 비밀의 집<br>7:40 MBC 뉴스데스크<br>9:00 심장이 뛰다38.5<br>10:20 라디오 스타                                                                       | 6:50 생방송 투데이<br>7:50 SBS 8뉴스<br>9:00 골 때리는 그녀들<br>11:10 왜 오수재인가                                                                                                   | 6:50 세계테마기행<br>7:00 두디다공<br>7:15 티시테시<br>8:00 당동명 유치원<br>8:20 한글왕사 아이아<br>9:05 빅블루<br>9:20 멤버와 함께하는 생활안전 이야기<br>10:10 한국의 둘레길<br>10:30 한국기행<br>10:50 최고의 요리비결<br>11:20 세계테마기행<br>12:00 EBS 뉴스12<br>12:10 극한직업<br>1:50 EBS 다큐프라임<br>2:45 연가를 찾자마<br>3:35 안전채널e<br>4:05 영어스토리 타임<br>4:15 페파 피그<br>5:00 EBS 뉴스<br>5:45 시흥<br>6:00 생방송 뚝지 해결단<br>6:45 티타임 쿠키<br>7:30 한국의 둘레길<br>7:50 세상에 나쁜개는 없다<br>8:40 세계테마기행<br>9:30 한국기행<br>9:50 EBS 다큐프라임<br>10:45 다큐영화 길 위의 인생<br>11:35 위대한 수업<br>그레이트 마인즈 |

| 오늘의 운세                                                                                     |                                                                                            | 7월 6일 (음력 6월 8일)                                                                           |                                                                                             |
|--------------------------------------------------------------------------------------------|--------------------------------------------------------------------------------------------|--------------------------------------------------------------------------------------------|---------------------------------------------------------------------------------------------|
| ‘소원’ 연서연 선생 제공 010-5915-6875 ysy_wish@daum.net                                             |                                                                                            |                                                                                            |                                                                                             |
| <br>子 | 48년생 시작이 반이다. 60년생 드디어 세상에 나의 능력을 보여줄 때가 왔다. 72년생 실력이 상의 평가를 받는다. 84년생 내 손 안에 있는 것만 내 것이다. | <br>辰 | 52년생 마음을 급게 쓰면 복을 받는다. 64년생 부질없는 일에 힘을 낭비하지 말라. 76년생 자신감이 지나치면 오히려 해가 된다. 88년생 오늘은 그냥 참아라.  |
| <br>丑 | 49년생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라. 61년생 주제를 파악하고 현실을 직시하라. 73년생 상상을 타고 질주한다. 85년생 참고 인내하면 좋은 날이 온다.    | <br>巳 | 41년생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53년생 일단 결정했다면 바꾸지 말라. 65년생 지금은 명분보다 실리를 추구할 때다. 77년생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
| <br>寅 | 50년생 반풍수 집안 망한다. 62년생 잡되는 늑은 어떻게든 된다. 74년생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곳이 없다. 86년생 이별수가 있으니 언행을 조심하라.   | <br>午 | 42년생 가는 곳마다 행운이 따른다. 54년생 지나친 겸손은 더 이상 이익이 아니다. 66년생 직장에서 인정받는다. 78년생 내 주장을 펼치고 뜻을 이룬다.     |
| <br>卯 | 51년생 사람이 재산이다. 63년생 생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찾아온다. 75년생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 87년생 건강에 주의하고 낙상을 조심하라.    | <br>未 | 43년생 산에 가야 벼를 잡고, 물에 가야 물고기를 잡는다. 55년생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67년생 세상에 믿을 놈이 없다. 79년생 무리한 활동은 금물이다. |
|                                                                                            |                                                                                            | <br>申 | 44년생 진정한 사랑은 용서하는 것이다. 56년생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68년생 한 순간 방심하면 틀림없이 후회한다. 80년생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있겠다.   |
|                                                                                            |                                                                                            | <br>酉 | 45년생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57년생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 서방이 번다. 69년생 아쉽게도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81년생 유희가에는 가지 말라.   |
|                                                                                            |                                                                                            | <br>戌 | 46년생 운기가 상승하고 있으니 험한 일은 없겠다. 58년생 불행은 혼자 오지 않는다. 70년생 표정관리 할 일이 있겠다. 82년생 마음껏 능력을 펼치겠다.     |
|                                                                                            |                                                                                            | <br>亥 | 47년생 횡액까지 겹치니 사고를 조심하라. 59년생 겉은 화려하지만 실속이 없다. 71년생 사랑과 미움 사이에서 고민한다. 83년생 과거는 잊고 현실에 충실하라.  |